

DearU, 현자의돌 생활과윤리 연구소와 함께 하는

1

제 1 교시

재수/반수 설명회 자료집

성명

출수형

설명회 순서

1. 연사 소개

1. 연사 소개

2. 독학 vs 종합반

- 독학 반수 자기 진단

3. 재도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

- 실제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

- 실제 선배 성공 CASE: 어떻게 성공했는가?

- 슬기로운 학원 생활

- 멘탈 관리는 어떻게?

4. For 반수생

- 종강까지 무얼해야 할까?

- 휴학해야 할까?

5. 재도전해야 할까?

7. 수능 당일 원점수 10점 손해보지 않는 방법

8. 좋은 공부 자료 소개

9. 시기별 학습 전략

10. 수능 전날 & 수능장에서 이것만 지키자

조연 멘토

* 문과 연사가 실패했던 이유

1. 과목별 공부 시간 분배 실패
2. 본인에 대한 자신감 부족: '얇은 귀'
-> 한국사가 어렵다는 '셀'
3. '쿠쿠다스' 멘탈: 수능에 대한 두려움
-> 막판에 공부를 거의 할 수 없었음
-> 1교시 패망의 지름길

2. 독학 vs 종합반

- 장점: 시간 확보, 본인에 맞는 스타일로 공부 가능
- 단점: 본인 공부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 미스
- 최대한 많은 자료 확보
- 재수생: 종합반 추천
- 특정 과목이 약하면서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최상위권: 독학 + 단과 추천

2-1. 독학 자기 진단

1. 수능 날까지 규칙적인 생활 (ex 7시 기상, 12시 취침)을 지킬 수 있는가?
2. 수능의 패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였고, 전 과목의 공부방향을 정확히 캐치했는가?
3. 양질의 학습 자료 및 도구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가?
4. 자신에게 맞는 공부 장소를 확보하였는가?
5. 정기적인 이벤트(원서 접수, 모의고사 등)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6. 대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가?
->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학 추천

3. 재도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

3-1. 실제 반수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

3-3. 실제 선배 성공 CASE: 어떻게 성공했는가?

1. 정해진 학원 스케줄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
2.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3. 후회없는 공부량
4. 인간관계 정리
5. 선택과 집중
6. 자투리 시간 활용 - '머너클럽 달린 지갑'
- 사소한 것은 자투리 시간에만
7. 쉴 때는 쉬자

8. 치밀한 PLANNING과 자기 반성

- 1) 거시적 PLANNING
- 2) 미시적 PLANNING

- 오늘 한 일들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 적어보기

3-4. 슬기로운 학원 생활

1. 선생님은 나의 적이 아니다 - 선입견 없애기

2. 같은 반 친구들: 동료, 전우

3. Main은 학원 수업

4. 단과는 부차적으로

5. 앞/뒷반 의미 없음

- 단지 재수 이전 성적대가 높은 학생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이 큰 것일 뿐

3-5. 멘탈 관리는 어떻게?

1. 후회없이 공부했다는 자신감

2. 막판에 공부를 많이 할수록 불안한 것은 당연

3. 3 Type Goal Setting: 이상적 목표, 현실적 목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의 목표

예) 이상적 목표: 서울대

현실적 목표: 서울교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의 목표: 경인교대

4.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

4. For 반수생

4-1. 종강까지 무얼해야 할까?

- 1. 최소한 작년 수능 다시 풀어보고, 틀렸던 부분은 꼭 정리해두기
- 2. 탐구 때문에 +1인 경우: 과목을 바꿀지 여부 선택하고 인강 병행
- 3. 제2외국어 시간 날 때마다
- 4. 학교 '리딩' 로드가 많은 수업은 끝까지 마무리 잘하기
- 5. 국어가 약한 수험생 제외하고는 신설 반수반 추천
- 6. 인간관계 정리
- 7. 어떤 교재와 인강, 단과로 공부할지 꼭 계획짜기

4-2. 휴학해야 할까?

- 1. 학교를 정말 바꿔야 하는 입장이면 휴학 추천
- 2.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면 무휴학 추천
- 3. 무휴학: 최저 학점으로만 짜되 몰아서 짜기
- 4. 무휴학 반수를 하더라도 필요한 단과 수업은 수강할 것
- 5. 이미 재수생들은 2월~6월까지 공부를 해놓은 상태

5. 재도전해야 할까?

1. 이런 경우 꼭 하자!
 - 원서질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학과 적성이 맞지 않는 경우
 - 교수, 로스쿨 진로를 생각하는 경우
2.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하자!
 - 단순히 더 높은 간판을 따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 입시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더 좋은 학교를 간 것이 부러운 경우
 - 고시, 공기업 진로를 생각하는 경우
 -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
3. 걸어놓은 대학이 있다면 무조건 등록하자!
 - 1) 학교반수: 등록금 + 수강신청을 하되,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학사경고를 받는 방법
 - 문의해야 할 것: 최소학점 미만으로 신청 시 불이익 여부 - 큰 불이익이 없다면 한 과목만 신청
 - 2) 자퇴: 등록금 + 수강신청은 하지만, 3월 중순 중 자퇴
- 변수: 실패 후 복학 시 재입학 가능성
 - 3) 수능은 변수가 큰 시험. 올해보다 100% 잘 본다는 보장이 없음
 - 4) 정시 원서 지원 시 유리
ex. 서울대 경제학과 평크의 수혜자: 연고대 상경 반수생
ex. 연고대 상경계 평크의 수혜자: 서성한 상경 반수생

6. 수능 당일 원점수 10점 손해보지 않는 방법

1. 수능 시계 미리 사기
 - 핸드폰 시계를 보고 푸는 것과 수능장에서 직접 사용할 시계를 보고 푸는 것은 매우 다름
 - 시간 조절이 잘되는 카시오 등등의 수능 시계
 - 국어 비문학 지문을 풀 때 한 개 지문은 9시 50분, 2개 지문은 9시 40분 등의 방식으로 시간을 설정해 놓고 풀기 - 지문 난이도, 장문/단문 지문의 여부에 따라 +/- 5분 정도 알아서 조절하기
 -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국어 지문 풀 때처럼 - 21, 30번: 1문제 11시 40분, 2문제 11시 15분 하는 방식으로 알아서 조절해가면서 풀기
2.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알아두기
 - 1교시에 배가 아프다면?
 - 국어 영역에서의 5분은 등급을 가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3. 9평 이후 6시 30분 이전 기상
 - 모든 것은 8시 40분 기준
4. OMR 마킹, 가채점 옮겨적는 연습
 - 모의고사는 물론, 단과나 개인적인 봉투 모의고사 풀 때도
 - 고난도 문제를 풀 때의 심리적 안정감은 대단히 중요
 - 어려운 문제 '버리는' 연습: 19 국어 31, 42번 - 틀려도 됐다!
5. 공부하면서 MP3 듣지 말기
 - '수능 금지곡'이 왜 있을까?

7. 좋은 공부 자료 소개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pdf'
->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1. 국어 인강 추천
대성마이맥 김상훈 선생님
-> 문학개념어, GRIT, EBS를 부탁해
- 2-2. 국어 자료 추천
김봉소 이강 모의고사 오프라인 버전 : 꼭 단과를 듣지 않더라도
개별 학원을 통해 구매 가능
- 3-1. 수학 인강 추천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
-> Drill
스카이에듀 정상모 선생님
-> 정상모의고사
대성마이맥 김경한 선생님
-> 파이널 강좌
- 3-2. 수학 자료 추천
현우진 선생님 Killing Camp 모의고사 오프라인 버전
오르비, 포만한 등 봉투 모의고사
4. 한국사 인강 추천
메가스터디 이다지 선생님
-> 파이널 - 9시간의 기적
5. 영어 인강 추천
대성마이맥 이명학 선생님
-> Full 커리 (특히 실전 모의고사)

8-1. 시기별 학습 전략 All Time

1. 난이도 예측은 의미 없다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에 항상 실패한다
ex. 15수능 국어 B형: 1컷 91점
- '신채호의 사상' 지문
ex. 19수능 화학문
2. 항상 겸손하되, 자기 자신을 믿자
3. 주말 중 하루 정도는 Blank로 비워 두자

8-2. 시기별 학습 전략 - 6평 이전

1. 자신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 가장 어렵!
- ex. 수학 나형: 3차 함수, 4차 함수 추론 파트
- ex. 국어: 문법
2. 6평 직전: 작년 수능 분석 - 다시 풀었을 때 올1등급을 자신할
정도의 개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반수생은 9평 이전)
3. 주말 중 하루는 쉬자
4. 너무 힘 빼지 말자

8-3. 시기별 학습 전략 - 9평 이전

1. 취약점 파악 및 최대한 보완 - 8월부터 오답 노트, 심화 노트
시작
- ex. 수학 21 30 테마 집중 공략
- 컴퓨터 잘하면 아예 내용들을 타이핑해서 정리하기
2. 경찰대나 사관학교 시험 응시 - '모의고사'용
3. 학원 방학 1주일: 국어 문법을 총정리 하는 등의 '테마 학습' 필
요

4. 9평 전달: 수능 전달처럼 보내기
- 식단 등등 모두 수능 전달처럼 - 학원 자습도 조퇴하기

5. 여름 체력 관리 필수 - 주말 하루는 비워두기

6. 반수생: 6평 시험지는 아껴두었다가 9평 직전에 9평 대비로 풀어 보기

8-4-1. 7,8월의 슬럼프

- 언젠가 한번씩은 찾아온다
-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
- 1주일 공부 놓아도 대세에 영향은 없다
- 너무 심하면 외출,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8-5. 시기별 학습 전략 - 9월 중순

- 오답노트 보면서 취약점 re-check
- 선택과 집중: 10월 이후에는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
-> 약점보완만 해도 충분하다
-> 안 풀리던 30번 1달 투자해도 똑같이 안 풀린다
- 9월 중순 이후의 하루는 7월 이전의 3,4일과 같다
- 10월 초 이후: 수능 직전에 볼 수 있는 자료들 만들어 놓기
- 주말 중 Blank 하루: 실모 푸는 날
- 너무 많은 실모는 자제하자 -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 평가원 기출로 '순화시키자'
-> 해설강의는 꼭 듣자
- 정말 힘든 날이 있을 수 있다 - 당황하지 말고 병원 가서 수액을 맞고 오거나 폭 자자
- 오르비, 수만회는 하지 말자 -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자
- 인강 수강 시간을 줄이자 - 너의 공부 시간을 늘려라

9-1. 수능 전날 이것만은 지키자

1. 월요일, 화요일: 가장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2. 수능 전주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 보는 것은 자제하자 -> 종이 활자 위주만 보자
3. 양파, 상추: 잠 잘 오게 하는 기능 (소화 여부 주의)
4. 수능 전날 '하루의 전사'가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5. 수능 전전날 너무 많이 자지 말자

9-2. 수능 당일 이것만은 지키자

1. 너무 많이 챙겨가지 말자 - 과목당 노트 한 권씩
2. 1교시 전: 국어 6,9평 시험지 가져가서 읽자
3. 귀마개,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꼭 가져가자
4. 원래 쓰던 샤프심이 있다면 그것도 가져가자
5. 교시별 시작 직전 화장실 다녀오자
6. 물병 커피병 등: 투명한 것으로
7. 포도당 사탕 등 챙겨가자

10-1. 국어 영역 Tip

1. 비문학이 관건 - 다양한 지문을 접할 필요성 증가
2. 17, 18, 19 6 9 수능 기출을 '씹어 먹자'
3. 푸는 순서: 화자문 -> 쉬운 비문학 하나 -> 문학 -> 중간 난도 비문학 하나 -> 마킹 -> 가장 어려운 비문학
4. 단어: 기출 단어들 복습 철저히
5. 비문학 Tip
 - 1) 1문단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다
 - 2) '정줄' = '주제줄'
 - 3) 문단을 유기적으로 읽지 못한다면 문단 요약 따위는 하지 말자

10-2. 수학 영역 Tip

1. 수학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 > 단순히 공식, 정의를 넘어서 문제 유형 하나 하나에 들어 있는 풀이의 논리적 흐름까지 포함
2. 교과서, 개념서를 토대로 "풀이의 근거"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논리적 알고리즘을 체화하여 분석
3. 6, 9평 문제를 그 해 수능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해 볼 것
4. 문제 풀 때 풀이를 시험지 원-위쪽부터 시작
5. 메이저 인강 수학 강사들의 최근 3개년 고난도 문제(21, 30번 종류) 해설 강의를 모두 들어보고 정리할 것
6. 확통, 역함수, 평행이동, 합성함수 파트 중요하게 공부하기
7. 1~19, 22~27번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도 중요 - 호흡 조절 필요
8. 10월 이후: 격자점이나 안 풀리는 파트는 과감하게 버리기 - 수학 96점 맞아도 서울대 원서 쓰는 데에 아무 지장 없음
9. 21, 30만 풀다가 바로 2등급행: 19 수능

10-3. 영어 영역 Tip

1. '모르는 문장은 한 번에 읽힐 정도로 해석 반복하기'
2. EBS에서 어려운 문장들 따로 정리해서 읽거나 문법 포인트들 체크하기 - 자투리 시간
3. 평가원은 핵심, 주제, 요지만 출제한다!
4. 절평의 영향: 확실히 영어 실력이 떨어져 있다

10-4. 사탐 및 제2외국어 Tip

1. 사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가기
2. 새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기
3. 사문, 생운을 동시에 한다면 제2외국어 필수
4. 생운: 1등급 위해서는 타 과목 1등급 맞는 노력 이상이 필요
5. 아랍어는 조금만 공부해도 2등급 확보 가능

10-5. 기타 조언

1. 논술: 너무 맹신하지 말자.
2. 논술: 최대한 글씨 또박또박 쓰기
3. 서류 전형에 다시 지원할 예정이라면 8월 전까지 자소서 수정해 두기

11-1. 컨설팅 어떻게 활용할까?

1